

# 군산지역경제 살리기 역량 집중

## 시, 국가예산 1조218억 투입 산업구조 미래 신산업 재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군산시(시장 강임준·사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역량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115억 원이 증액된 1조 218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융복합 미래 신산업, 새만금 개발,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을 대거 확보해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군산 산업구조를 미래 신산업으로 재편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45억 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

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 사업(15.7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16억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15억 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구축사업(20억 원) 등은 조선업 및 자동차업계에 처한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35억 원)과 소상공인 스마트 저운참고 건립(1.6억 원) 사업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강임준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입대용



지 조성 사업(272억 원) 예산 확보로 기업유치를 위한 추가 용지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기업유치 및 일자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맥주보리품종 이용 국산맥아 산업화 사업(2.5억 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10억 원), 명품 김 가공 공장 시설(18억 원), 군산 해역 해상서식장 조성사업(8억 원)이 추진되며, 광역 해양관광패러 체험단지 조성

(10억 원)과 어촌 뉴딜 300사업(70억 원)을 통해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힘쓸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 밖에도 군산 창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7.5억 원),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 사업(55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2.5억 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자립도시 군산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한편 목적예비비 및 정부 추경 등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학교는 군산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역교육발전에 '온 힘'

군산대학교, 군산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 협약

군산대학교는(총장 광병선)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8일 군산대학교 제 1소회의실에서 교원양성과정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병선 총장은 "군산대학교는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비교사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광순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미래 사

회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과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지도역량을 가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부 15개 전공과 교육대학 11개 전공에서 교직과정을 운영 중으로, 지역사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교원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익산시의회, 지역발전 현안사업 해결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정현을 시장과 조규대 의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8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시의회는 지역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시와 시의회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공사, KTX익산역 국제

여객 철도 시발역 육성 등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Green Eco City' 익산만들기와 민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말 산업 VR체험관 조성사업 및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현안사업들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가 한자리에 모여 시정발전을 위한 진솔한 대화가 이어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정례 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역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성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현안사업 해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 익산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장은 "의회를 통한 공조로 함께 가지는 정현을 시장의 뜻에 동의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추

진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시와 협력해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 '눈길'

군산시가 원도심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중앙거리에서 해신동 주민센터까지의 중앙로 거리를 특색 있는 간판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건물번호판을 건물과 거리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는 일반적인 건물번호판

과는 다르게 건물 미관과 '군산시간여 행마을'이라는 관광지 특색을 고려한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여 더욱 눈길을 끈다.

기존의 획일적인 건물번호판을 벗어나 건물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

도록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건축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의 대표 관광지의 특색에 맞게 제작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향



상될 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므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원광대 김옥진 교수, 2019 앨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

원광대학교는 김옥진(생명환경학부) 교수가 세계 주요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수여하는 '2019 앨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상은 마르퀴즈 후즈 후가 각 분

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옥진 교수는 수의학과 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합학문 학술단체인 한국 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장을 맡아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연구사업단의 '이동용 반려견 교감교육 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활용방안 연구'를 맡아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es Who's Who)와 미국 국제인명센터(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및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돼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익산농업기술센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제12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농업인대학은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운영된다.

익산농업인대학은 3개년 100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은 오는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문 이론교육부터 농업현장의 체험·실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학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영농규모를 갖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상담소, 익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오는 2월 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9일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1114명이 수료했으며, 이들은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농업축산사업 신청자 모집

군산시가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순환 경제와 농가 현장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맞춤형 농업축산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맞춤형 농업축산사업'은 수도작 생산 분야, 원예농업분야, 축산 및 가축위생 분야 등 총 32개 사업을 진행한다.

내용은 우렁이 공급지원, 친환경단지 논독시트 설치 지원,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발자물 스프링클러, 기후변화 축사개선사업, LED유해 해충구

제사업, 축사 차열포인트 지원사업,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등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2월 중 평가 및 농경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경분야 사업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